**“Great and Marvelous are your works" (Reflection Paper)**

**과목**: 기독교 세계관 **분반**: 02

**학번**: 21800201 **이름**: 김현욱

Ewan Thomson 교수님이 만났던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한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교수님이 한동에 오기 정확히 7년 전, 2013년 9월 1일 런던 공항에서 중국으로 선교를 위해 떠났지만 그때는 자신이 가는 정확한 목적지도 모르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시작해야 했었던 그의 발걸음부터 시작되었다. “정말 제가 이곳으로 가야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신호(Sign)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며 공항의 기도실에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없는 현실을 직시하여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었다. 하지만 2013년 6월에 출판이 된 당시 들고 있었던 책(QT책)에 현재의 날짜인 9월 1일자의 말씀이 적혀있었고 그 문구가 교수님의 마음에 들어왔다고 한다. “The call of Faith”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리키는 한 구절과 함께 자신이 과거에 읽었던 예레미야서 29장 7절의 말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Sign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2007년 연변 과기대로 부름을 받고 가서 일하던 중 많은 학생들과 교류했고 특히 총장님이 교수님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선택한 장소에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했던 의미 있는 공간을 접하게 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는 순간이 되었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적, 하나님은 완벽한 수학자이시라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완전하신 수는 7이다. Ewan Thomson 교수님도 2013년 9월 1일부터 정확히 7년 뒤인 2020년 9월 1일에 한동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산 교수님과 연변 과기대의 김진경 총장과의 관계 그리고 장순흥 총장님과의 만남으로 한동으로 오게 되었다.

저도 하나님께서 한동으로 저를 부르신 그 소명을 통해 행복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동대 학생입니다. 교수님의 간증을 통해 믿음의 스승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 분들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그 동안 제가 받아왔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제가 한동에 있는 이유와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뉘우침으로 다시 한 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인 비전뿐만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의 복음 완성,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고 국가적 통일 뿐만 아니라 민족적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라는 인간이 이바지해야 할 하나님의 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